

# ‘관피아’ 의혹 국회의원 뒷돈 받고 의정활동?

## 野 의원은 ‘교육’ 與 의원은 ‘철도마피아’ 혐의 檢 사정 칼날 정치권 겨냥… 뇌물수수 적용 관건

검찰이 여야 의원들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앞 다퉈서 ‘관피아’ 적결을 내세워 왔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관피아가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교령 변경 법안 발의=5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서울 종합예술직업학교(SAC)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 학교가 최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이름을 바꾼 근거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했다.

김철은 김민성(55) 이사가 교명에서 ‘직업’을 빼 4년제 정규대학처럼 보이게 하려고 법 개정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장을 맡은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김재윤 의원이 도입했다. 신학용 의원은 교령 관련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서 법안 통과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이들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 입찰 대변=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6일 검찰에 출석하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은 철도공사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국회로 진출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경우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임기 말인 2011년 3월 삼표이앤씨와 문제의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케도)를 실용화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PST와 분기기 등 케도 핵심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삼표이앤씨에 향후 사업까지 몰아준 셈이 됐다. PST는 군열 등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호남고속철도 등지에 계획대로 납품됐다.

조 의원은 2012년 국회에 진출한 뒤에는 국토해양교통위원회로 활동하며 국산화를 명분으로 삼표이앤씨를 추천 지원

했다. 의심 받고 있다.

◇뇌물수수적 적용되나=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을 뿐 청탁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돈을 건넨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했거나 이해관계가 뚜렷한 법안을 발의한 점을 감안할 때 금품이 전달된 사실만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승원 칼럼

형, 나는 답답하면 늘 바닷가 모래밭으로 나가서 먼 바다에서 달려오는 파도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파도에는 세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 바다에서 머리에 하얀 거품을 이고 줄기차게 달려온 드높은 파도는 애초의 대단한 기세만큼 모래톱을 멀리 높게 휩쓸지 못하고 미리 재주를 넘으면서 하얗게 무너지는데 ‘찰썩’ 하는 소리만 높습니다.

뒤따라 달려온 두 번째 파도는 기세가 그다지 높지 않고 밋밋한데 세 번째 파도가 휩쓸 모래톱까지도 나아가지를 못하고 좌절합니다. 세 번째로 달려온 파도는 너울성이어서, 파고가 높지는 않지만 폭이 넓어, 중간에서 멍석처럼 말리지 않고, 두 번째의 파도보다 더 멀고 높은 모래 언덕까지를 정쾌하게 휩쓸어버립니다.

수없이 많은 파도들이 먼 바다에서 달려와 모래톱을 휩쓸는데 분류해보면 그 세 가지 종류의 파도가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는 그 세 가지 파도처럼 반복되는 울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파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만일 했다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표를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예상을 따오겠다는 여당 후보에게 표를 준다

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바빠서 기권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또 한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표를 주었다는데, 그 후보의 패인을 나름대로 꼬집어 주었습니다.

새정치연합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아무개씨는 이번 선거에서 지지자와 함께 등을 돌렸는데, 그것은 1년 10개월 뒤에 있을 총선에서 자기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개씨는 예전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갈등 관계에 있었기에 후보를 향한 여론도 좋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일부 세력이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상대방을 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 도도한 역사의 파도 앞에 서서

도는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의 파도는 두 번째 파도의 실패를 거울삼아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당에게 참패를 당한 날 아침의 야당 당사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지도부의 퇴진으로 인해, 머리를 잃어버린 지내처럼 공황상태에 빠진 그들은 본 형의 가슴 또한 장례식장의 분위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은 생애적으로 그들을 응원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응원은 여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가뜩이나 시르죽어 있는 야당을 질타하고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총격 속에서 나는 순천과 곡성에 살고 있는 뜻 있는 친지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투표했느냐는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곡성에 사는 한 친구는 곡성 출신인 여당 후보에게 당연히 표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곡성 사람들은 여야를 떠나 인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하는 그에게 물표를 준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의 수로 볼 때 곡성의 아홉 배인 순천의 친지들 가운데 하나는 투표

구호를 외치는 무력한 야당 후보의 싸움을 보고 난 적극지지층의 표심은 지역일꾼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천의 내 친지들은 똑같이 “1년 10개월 뒤에 진짜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라며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50%의 침묵한 민중을 주시합니다. 그 침묵의 민중들은 의식이 없이 잠들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온 탕아를 미워할 줄도 알지만, 그 탕아가 박해받는 것을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발전에서의 바람직한 힘의 균형을 생각하곤 하는 형, 참패한 그들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1년 10개월 뒤에는 총선이 있고, 그때로부터 2년 뒤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이번에 참패한 그들은 늘 그렇게 해왔듯이, 어지러운 카오스(혼돈)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 가슴앓이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주먹을 불끈 쥐도록 아름답고 부들부들 새 도전의 코스모스(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발전의 역사의 참모습은 늘 그 세 종류의 파도와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소설가>



4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 유니언시티의 리버티폴라에서 열린 ‘일본군 강제동원 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가운데)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옆은 이옥선 할머니. /연합뉴스

## 위안부 할머니, 美 백악관·국무부와 극비 회동

### 배석자 없이… 美 위안부 정책 변화 주목

미국 뉴욕의 관문인 4일(현지시각) 세 워싱턴 ‘군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 맞춰 미국을 찾은 이옥선(87), 강일출(86) 두 할머니가 ‘극비리에’ 미국 백악관·국무부 관계자들과 연세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할머니와 백악관·국무부 회동’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무 배석자 없이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최고기관인 백악관과 국무부가 잇따라 군 위안부 할머니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의 군 위안부 관련 정책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두 할머니의 방미 활동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옥선, 강일출 두 할머니가 철저한 보안 속에 미국 백악관·국무부 인사들과 이틀간 연세 회동했다”고 밝혔다. 두 할머니와 백악관 관계자의 면담은

지난달 29일에, 국무부 인사들과의 만남은 다음날인 30일에 각각 1시간여 동안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각각의 면담에 앞서 “아무런 배석자 없이 만나기로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두 기관과의 면담에는 두 할머니만 참석했으며, 두 할머니의 발언을 전할 통역사도 미국 정부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번 연세 비밀 면담은 지난 1월 미국 연방하원의 미국 국무부로부터 하여금 일본 정부에 지난 2007년 미국 연방하원의 ‘군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세출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부작용: 수술 초기 약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뢰 제 140611-중-5915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뢰 제081110-중-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리,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 ② 이드를 레이저: 스쿠스팀,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③ 세오 레이저: 현통맥스, 다이오우드제오
- ④ 피부 미백: 쉐메니스틴 엑셀, 쉐메니스틴 루비레이저
- ⑤ 주름·출혈: 프락셀5점, 울트라펄스싱크로, 프랙토라 인트라젤, 프락셀 세나
-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점
- ⑦ 비인: 네오울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운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